

통일교 종립학교의 종교 교과서 분석과 평가

이 재 일

선문대학교

〈요 약〉

이 논문은 통일교의 고등학교용 종교 교과서 교과서를 분석한 것이다. 먼저, 교과서를 제7차 종교 교육과정과 비교하면서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및 교수·학습의 방법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발달이론의 관점에서 종교 교과서에 담겨있는 내용이 고등학생에게 적합한 것인지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서는 교과서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았다.

통일교의 종교 교과서는 종교학적 종교교육과 신앙적 종교교육의 양면을 병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교과서의 종교일반에 대한 서술에는 다분히 유일신 신앙적 사고와 통일교적 관점이 기반을 이루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통일교의 종교 교과서에는 교육목표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 단원의 교육목표에 부합되지 못하는 서술 내용도 발견된다. 현행 교과서의 내용은 발달이론의 측면에서 고등학생이 이해하기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교수·학습의 방법 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7차 종교 교육과정이 제안하는 내용은 종교학개론에 가깝다. 통일교의 학교 종교교육이 7차 종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부합하려 한다면 추상적인 종교적 지식을 구체적인 지식이 될 수 있도록 교과서의 편찬과 집필 과정에서 더욱 세심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핵심 주제어 : 제7차 종교교육과정, 종교학적 종교교육, 신앙적 종교교육

I. 서론

중·고등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해 교육현장과 학계에서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이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설정한 7차 종교교육과정의 모호성이 지적되고 종교교육의 위치와 성격에 대한 근본적 성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¹⁾ 이러한 상황에서도 종립 중·고등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이 계속 실시되고 있다. 학교교육의 내용은 주로 교재를 통하여 학생에게 전달되게 된다. 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교재는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의 목표로 나아가도록 안내하고 자극하고 지원한다. 종교 과목의 경우 학생들은 교재를 매체로 하여 종교의 세계를 탐구하게 된다.

한국의 종립 중·고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이 실시되어 왔으나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 종단의 종교 교재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여, 무슨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떠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는지 검토되지 않았었다. 이 글은 한국종교교육학회가 추진하는 “종립 학교의 종교교재 분석과 평가” 작업의 일환으로 구상되었다. 필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신종교계 종립학교의 종교교재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신종교 중에서는 통일교와 대순진리회가 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²⁾ 그런데 대순진리회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통일교의 종립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종교교재를 대상으로 삼았다. 그 중에서도 고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통일교계 중학교로는 선정중학교, 선화예술학교, 청심중학교의 3개교와 고등학교로는 선정고등학교, 선정여자실업고등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청심고등학교의 4개교가 있다. 이 중에서 청심 중·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들은 1996년에 편찬한 종교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고, 청심 중·고등학교는 2006학년도에 개교하여 외국에서 발간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통일교계 중·고등학교는 애천, 애인, 애국의 건학이념을 표방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자’는 건학이념의 취지는 통일교의 교육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통일교의 교육이념은 ‘삼대축복’의 실현을 핵심으로 삼는다. 삼대축복이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 인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³⁾는 성경에 근거한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다. 통일교는 이를 개체의 완성, 가정의 완성, 만물주관의 완성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인간이 지상에서 이루어야 할 과업으로 받아들인다.⁴⁾ 통일교계 중·고등학교는 이러한 건학이념과 교육이념을 배경으로

1) 김철주·고병철,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종교교육론의 쟁점과 새로운 방향>,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17권, 2003, 114-115, 120-128쪽.

2) 천도교의 경우 종단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중등학교는 없으나 천도교 이념으로 운영되는 동천고등학교가 있다. 동천고등학교는 종교 교재로 천도교교육자회에서 1995년에 발간한 《천도교》를 사용하고 있다. 송준석, <제7차 교육과정과 천도교의 종교교육>,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13권, 2001, 139-153쪽.

3) 《성경전서》 창세기 1장 28절.

운영되고 있다.

통일교계 중·고등학교의 종교교육을 위한 교재로는 교과서⁵⁾, 교사용 지도서⁶⁾, 교사 개인의 교육자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종교 교과서 중에서 고등학교용 교과서를 분석하였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하였다. 교과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중핵이다. 교육과정이란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를 제시한 기준을 말한다. 그러므로 특정 종단이 발간하는 종교 교과서를 분석해봄으로써 당해 종립학교가 지향하는 종교교육의 성격, 방향, 목표, 내용 등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고등학교 종교 교과서를 제7차 종교 교육과정과 비교하면서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및 교수·학습의 방법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발달이론의 관점에서 종교 교과서에 담겨있는 내용이 고등학생에게 적합한 것인지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학생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서는 교과서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본다.

II. 제7차 종교 교육과정과 통일교 종교 교과서

1. 제7차 종교 교육과정과 통일교 종교 교과서의 개관

7차 종교 교육과정은 8개 단원의 3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8개의 단원들은 4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즉, 종교일반의 이해를 위한 I, II 단원, 종교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III, IV 단원, 종교와 관련된 인간, 자연, 공동체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V, VI, VII 단원, 특정 종교의 이해를 위한 VIII 단원으로 구분된다.

7차 종교 교육과정은 종교학적 종교교육과 신앙적 종교교육을 실시하되 전자를 강조한다. 7차 종교 교육과정의 기본 목표는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의 습득과 건전한 종교관 정립”, “인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심 확충”, “타종교를 포용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교인으로서 생활 태도 함양”으로서 이는 6차 교육과정의 목표와 동일한 것이다.⁷⁾ 나아가 7차 종교 교육과정은 “궁극적 가치와의 만남을 통해 종교적 인격을 기르며”, “세계 여러 종교의 특성을 이해”하고, 한국 사회의 종교문화를 이해하고 특

4)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1995, 44-50쪽.;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서울: 성화출판사, 1993, 345-353쪽.

5)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중학교 종교 1》, 서울: 선화학원, 1996.;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중학교 종교 2》, 서울: 선화학원, 1996.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중학교 종교 3》, 서울: 선화학원, 1996.;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고등학교 종교 2》, 서울: 선화학원, 1996.;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고등학교 종교 2》, 서울: 선화학원, 1996.

6) 통일교계 종교 과목의 교사용 지도서는 유인물임.

7)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양-》,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124, 129, 149쪽.

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을 학습하여 신앙심을 배양할 것 등을 세부적 목표로 삼고 있다.⁸⁾ 한편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일상의 생활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다종교 상황에서 타종교에 대한 포용력을 기르며 종교 간의 화합을 지향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⁹⁾

통일교계 종교 교과서는 중학생용 1, 2, 3권과 고등학생용 1, 2권으로 구성되었다. 각 책은 5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의 단원 중 앞의 I, II, III 단원은 종교 일반에 대한 설명이고, 뒤의 IV, V 단원은 통일교의 가르침에 대한 해설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과서 사이에는 단원의 이름이나 서술된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교과서에는 각 단원마다 “단원의 길잡이”가 있어 각 단원의 성격을 알려주고 있으나 단원의 교육목표를 분명하게 드러내지는 않는다.

통일교계 종교 교과서의 편찬 과정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종교 교육과정에 맞추고, 통일교의 가르침에 부응하며, 다종교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였다.¹⁰⁾ 이는 6차 또는 7차 종교 교육과정의 교육목표로 설정된 사항들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기본 목표인 종교적 지식의 습득과 건전한 종교관 정립, 인생 문제를 극복해 나아가는 신앙심 확충, 타종교 포용 그리고 세부적 목표인 종교적 인격 형성, 세계 종교의 특성 이해, 한국 종교문화의 이해,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 학습을 통일교 종교 교과서의 교육목표로 상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먼저 고등학교 교과서 1권에 있는 각 단원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과 종교”는 종교 교과서의 도입 부분이다. 이 단원에서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종교적 존재임을 밝히고, 종교를 통해 인격의 성장을 꾀할 수 있음을 서술하였다. 둘째, “세계문화와 종교”에서는 세계의 주요 종교인 불교, 유교와 도교,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의 창시자, 출현 배경, 핵심 사상과 주요 경전, 특징 등을 설명하였다. 셋째, “종교경전들의 정신”에서는 세계의 여러 종교들이 지닌 다양한 가르침 중에서 공통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을 소개했다. 즉, 진리에 이르는 길인 종교는 다양할 수 있다는 것, 궁극적 실재는 한 존재라는 것, 인간은 양심에 따라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도덕적 삶이란 결국 위하는 삶이라는 것 등을 설명하였다. 넷째,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는 하나님, 세상, 수수작용의 세계, 창조목적, 유형·무형 세계를 살아가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할 인간 등에 대해 다루었다. 다섯째, “인간의 타락”은 원죄, 타락의 동기와 경로 등으로 인류가 지닌 죄악의 기원을 설명한 부분

8) 위의 책, 129-130쪽.

9) 위의 책, 147-148쪽.

10) 집필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했다. 첫째, 교육부의 종교 과목 교과과정의 방향에 맞춰,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과 종교적 심성 계발을 목표로 하면서 타종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둘째, 학생들이 이 시대의 진리인 성약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하나님의 복귀섭리에 부응하는 교과서가 되도록 했다. 즉, 통일원리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원리강론》을 요약하여 제시했다. 셋째, ‘하나의 진리 다양한 길’ 또는 ‘한 분 하나님 다양한 종교’를 기본 정신으로 하는 《세계경전》의 정신을 포함하도록 노력했다.(국제종교재단, 《세계경전》, 서울: 국제종교재단출판국, 1994 참조). 이재일, 《통일종교교육개론》, 충남 아산: 신문대학교출판부, 2005, 282쪽.

이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교과서 2권에 있는 각 단원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사회와 종교”에서는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현대 사회는 도덕적 타락, 인종 차별, 환경 파괴, 가치관의 혼란 등 여러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종교가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둘째, “한국문화와 종교”에서는 한국의 종교적 흐름을 소개하였다. 무교를 중심한 전통적 민간신앙의 설명에 이어 한국에서 발생한 주요 민족종교를 소개했고, 민족종교의 특징으로 새 시대 도래사상을 설명했다. 또한 외래 종교인 불교, 유교, 기독교의 수용을 소개하였다. 셋째, “종교 경전의 이해와 실천”에서는 세계 종교들이 지닌 경전의 기본 구조와 핵심 사상 및 실천을 설명하였다. 넷째, “역사 속의 하나님”에서는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섭리를 설명하였다. 다섯째, “새 시대를 맞는 우리”에서는 동시성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섭리, 재림 등을 설명하였다.

종교 교과서의 이와 같은 주요 내용은 통일교계 종교 교과서가 다종교적 현실을 고려한 가운데 종교학적 종교교육과 신앙적 종교교육을 병행하고자 개발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7차 종교 교육과정의 방향과 동일한 것이다.

2. 제7차 종교 교육과정과 통일교 종교 교과서의 비교 분석

1) 단원 명칭과 세부 항목

<표 1>은 7차 종교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목차를 대조한 것이다. 7차 종교 교육과정은 6차 종교 교육과정 중에서 5단원 “현대사회와 종교”를 “종교 공동체”로 변경하고 2개의 단원 즉,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과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를 추가하였다. 통일교계 종교 교과서는 6차 종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7차 종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볼 때, 양자 사이에서 서로 유사한 단원들은 1단원, 3단원, 6단원이다. 이보다는 양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 단원들을 비교하는 것이 양자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보여줄 것이다. 첫째, 7차 종교 교육과정의 2단원은 “종교경험의 이해”인데 교과서의 2-Ⅲ 단원은 “종교 경전의 이해와 실천”이다. 둘째, 7차 종교 교육과정의 3단원은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인데 종교 교과서의 1-Ⅲ 단원은 “종교 경전들의 정신”이다. 셋째, 7차 종교 교육과정의 5단원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인데 교과서에는 이와 유사한 단원이 없다. 넷째, 7차 종교 교육과정의 7단원은 “종교 공동체”인데 교과서의 2-I 단원은 “현대사회와 종교”이다. 다섯째, 7차 종교 교육과정의 8단원은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이다. 그런데 종교 교과서에서는 1-Ⅳ, 1-V, 2-Ⅳ, 2-V의 4개 단원에서 특정 종교로서 통일교의 교리를 서술하고 있다.

〈표 1〉

7차 종교 교육과정			고교 종교 교과서(1, 2) ¹⁾	
영역	단원	세부 항목	단원	세부항목
종교 일반 이해	1단원 인간과 종교	궁극적인 물음과 문제 종교와의 만남과 문제해결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종교의 의의와 역할	1-I. 인간과 종교	1.인간이란 무엇인가 2.종교와 인간의 삶 3.종교와 과학의 만남 4.인격의 완성과 종교
	2단원 종교경험의 이해	여러 가지 인생 문제 우주관, 역사관, 생사관 경전과 종교 규범 종교의례와 종교적 실천	2-III. 종교 경전의 이해와 실천	1.불교 경전 2.유교 경전 3.기독교 경전
종교의 다양한 모습 이해	3단원* ¹²⁾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종교 사상과 배경 참된 것과 깨달음 종교의 특성 이해	1-III. 종교경전들의 정신	1.하나의 진리 2.궁극적 실재 3.양심과 도덕적 삶 4.위하여 사는 삶
	4단원 세계종교와 문화	유교와 도교 불교 크리스티교 이슬람교와 기타 종교	1-II. 세계문화와 종교	1.불교의 전통 2.유교와 도교의 전통 3.이슬람교의 전통 4.힌두교의 전통 5.기독교의 전통
종교와 인간, 자연, 공동체의 이해	5단원*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다양한 인간관 종교적 인간관 종교적 자연관 과학과 종교	(1-I-3)	
	6단원 한국종교와 문화	한국 불교와 문화 한국유교 및 도교와 문화 한국 크리스티교와 문화 한국무속신앙과 민족종교	2-II. 한국문화와 종교	1.전통적 민간신앙 2.민족종교 3.외래종교의 수용 4.새 시대 도래사상
	7단원 종교 공동체	공동체의 이념과 구조 종교의 사회적 기능 종교 간의 화해와 공존 종교적 인격 형성	2-I. 현대사회와 종교 (1-I-4)	1.현대사회의 특징 2.현대사회의 갈등과 종교 3.이데올로기의 극복과 종교
특정 종교	8단원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	경전, 교리, 역사 종교적 생활 한국 종교와 문화 창조 나의 종교 생활 설계	1-IV. 하나님의 창조세계 1-V. 인간의 타락	1.하나님과 세계 2.주교받는 세계 3.창조목적 4.인간을 중심한 두 세계 1.원죄란 무엇인가 2.타락의 동기와 경로 3.인간 타락의 결과
			2-IV. 역사속의 하나님 2-V. 새 시대를 맞는 우리	1.아담가정의 구원섭리 2.노아가정의 구원섭리 3.아브라함 가정의 구원섭리 4.가나안으로 향하는 모세 5.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1.역사의 반복과 하나님의 섭리 2.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메시아 3.한민족을 찾아오신 섭리의 손길

2) 교육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다음으로 7차 종교 교육과정과 종교 교과서를 단원의 목표, 서술 내용, 교수·학습의 방법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분석하여 보자.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양-》에는 7차 종교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단원의 목표가 서술되어 있다. 《고등학교 종교 1》과 《고등학교 종교 2》의 경우에는 “단원의 길잡이”에서 단원의 목표를 추론하거나 교사용 지도서에서 “단원의 목표”를 살펴보았다. 서술 내용의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양-》에서 “지도할 내용”을 살펴보고, 교과서에서는 서술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각 단원에 대한 일괄적인 비교분석보다 필요에 따라 특징적인 사항들을 찾아보았다.

첫째, 7차 종교 교육과정의 1단원과 교과서의 1-I 단원은 모두 “인간과 종교”를 주제로 삼아, 인간은 종교적 존재로서 인간의 삶에서 종교가 중요하고 필요한 것임을 서술한다. 양자 간의 차이는 7차 종교 교육과정이 종교는 삶의 차원을 넘어서서 믿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보다는 가치와 의미에 초점을 두는 것임을 언급하는데, 교과서는 이 단원에서 종교와 과학의 만남 그리고 인격의 완성에서 종교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¹¹⁾

둘째, 7차 종교 교육과정은 2단원 “종교경험의 이해”를 통해 학생들을 다양한 종교가 지닌 가치관, 규범, 의례의 파악 그리고 관용과 이웃 사랑의 체득과 실천으로 안내하고자 한다. 그리고 생생하고 실감나는 종교 수업이 되도록, 종교세계에서 구체적으로 경험 가능한 내용인 인생문제, 우주관, 역사관, 생사관, 종교적 규범, 의례 등을 세부 항목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교과서의 2-III 단원 “종교경전의 이해와 실천”에서는 불교, 유교, 기독교의 주요 경전을 분류하여 제시하고 그 경전들의 대표적 정신을 언급하면서, 불교의 보살도와 유교의 인(仁)의 정신 그리고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교과서에는 7차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우주관, 역사관, 생사관 항목이 없다. 우주관, 역사관, 생사관과 같은 항목은 청소년들이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7차 종교 교육과정의 3단원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에서는 세계 종교의 사상과 역사적 배경, 종교 간의 상대적 차이와 특성 및 그 배경을 논의한다. 그런데 교과서 1-III 단원 “종교 경전들의 정신”에서는 다양한 세계 종교의 전통에서 공통점을 찾아보았고, 나아가 종교 간의 화해와 대화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즉, 세계 종교 전통들 사이에서 일치점으로 하나의 진리, 궁극적 실재, 양심과 도덕적 삶, 위하여 사는 삶을 제시하고 이들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교과서는 남을 위한 희생과 봉사가 세계 종교의 일치된 정신이라고 해석함

11) 고등학교 종교 교과서 1권과 2권은 각각 5개 단원(I-V)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설정한 7차 종교 교육과정은 8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도표에서는 1권의 각 단원을 1-I, 1-II...의 방식으로 그리고 2권의 각 단원을 2-I, 2-II...의 방식으로 기호화하였다.

12) * 표시가 된 3, 5단원은 7차 종교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설정된 단원이다. 6차와 7차의 종교 교육과정은 교육 영역과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다. 교육부, 앞의 책, 130쪽.

13) 7차 종교 교육과정의 경우, 5단원의 네 번째 항에서 “과학과 종교”를 언급하고, 제7단원의 4항에서 “종교적 인격의 형성”을 다룬다.

으로써 인류 문화에서 세계 종교가 지닌 의미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교과서의 이러한 설명은 세계의 종교를 유일신론적 관점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종교 간의 차이를 간과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에 7차 교육과정은 종교 간의 차이점을 현상 그대로 인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넷째, 7차 종교 교육과정의 4 단원 “세계종교와 문화”는 주요 종교들의 특성, 핵심 사상, 전개과정을 비교하여 종교 일반과 특정 종교의 전통 및 그 현대적 의미의 이해를 도모한다. 이와 유사하게 교과서의 1-II 단원 “세계문화와 종교”는 주요 종교의 전통을 다루면서 창시자의 생애와 가르침, 종교적 특징과 핵심사상을 고등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간결하게 서술하였다. 그런데 교과서는 세계 주요 종교의 역사나 핵심 사상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면이 있다. 이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 종교의 현대적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현실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7차 종교 교육과정의 5 단원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관점을 이해하여 인생문제에 접근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교과서에는 이에 해당하는 단원이 없다. 종교적 가르침이 일상의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이 종교인의 신앙생활이다. 그렇다면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교육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차 종교 교육과정에서 5 단원의 네 번째 항목 “과학과 종교”는 과학과 종교의 갈등 그리고 양자의 조화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교과서의 1-I 단원 3 항목 역시 “종교와 과학”을 주제로 삼는데, 교과서에서는 양자의 유사성을 강조하고 조화할 필요성을 말했다. 그러나 양자가 왜 갈등하는지를 논의하고, 7차 종교 교육과정처럼 양자는 서로 다른 실재들의 일부임도 언급한 후, 종교와 과학은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위해 선용되고 조화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7차 종교 교육과정의 6단원 “한국종교와 문화”에서는 한국의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무속신앙, 민족종교와 문화를 다룬다. 이 단원은 한국 종교의 전래와 전개 과정, 핵심 사상을 이해하여 한국 종교들의 복합성과 이들이 한국 문화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교과서 2-II 단원 “한국 문화와 종교”에서는 민간신앙의 특징 및 민족 종교들의 출현 과정과 핵심 사상을 고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언급하였다. 그리고 외래 종교 수용의 특징을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의 특징이라고 보았고, 한국적 종교의 특징을 이상사회의 도래 사상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은 통일교의 관점에서 해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곱째, 7차 종교 교육과정의 7단원 “종교 공동체”는 종교의 공동체 조직과 제도, 공동체적 삶의 기능을 이해하도록 안내한다. 이를 위해 “공동체의 이념과 구조”, “종교의 사회적 기능”, “종교 간의 화해와 공존”, “종교적 인격의 형성”이 세부 항목으로 설정되었다. 이와 달리 교과서의 2-I 단원 “현대사회와 종교”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현대인의 정신적 빈곤, 가치관 혼란, 잘못된 이데올로기 등으로 보고 이들을 종교적 화해와 사랑으로 해결할 것을 주

장한다. 이 단원에서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나서 현대사회의 갈등과 이데올로기의 문제 특히, 공산주의의 유물론과 경제론 및 인간론을 종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강조와 종교인의 화해와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원론적이고 막연한 표현이다. 공산주의는 반종교적 이념이고 무신론의 일종으로서 허구에 기초된 것이다. 잘못된 사상인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의 허구를 밝혀내는 종교 사상에 의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차 종교 교육과정의 세 번째 항목인 “종교 간의 화해와 공존”은 다종교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매우 필요한 주제이다. 통일교계 중학교 교과서에는 하나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¹⁴⁾, 고등학교 종교 교과서의 경우 1-III 단원의 1항목이 “하나의 진리”로서 하나의 진리에 이르는 길이 다양하므로 타종교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7차 종교 교육과정의 네 번째 항목 “종교적 인격 형성”과 유사한 주제가 교과서 1-I 단원의 4항목 “인격의 완성과 종교”에서 서술되고 있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종교가 인간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도록 인도한다고 할뿐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있다. 종교는 인간으로 하여금 궁극적 실재와 만나도록 이끌어주고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의 형성과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주어, 인격적 성장을 촉진한다고 서술하는 것이 더 구체적인 표현이 될 것이다.

여덟째, 7차 종교 교육과정의 8단원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은 특정 종교의 “경전, 교리, 역사”, “종교적 생활”, “한국종교와 문화 창조”, “나의 종교적 생활설계”의 세부 항목을 다루는 부분이다. 그런데 교과서 1-IV, 1-V, 2-IV, 2-V 단원에서는 통일교의 교리 위주로 서술되었다. 더구나 신종교인 통일교는 청소년들에게 낯선 종교이다 그러므로 교리적 내용을 줄이고, 학생들이 통일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창시자, 출현의 배경, 현황, 주요 활동 등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통일교의 역사, 종교적 생활, 문화 창조 등의 내용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3) 종합적 논의

이상으로 통일교계 종교 교과서를 7차 종교 교육과정과 비교하면서 분석하였다. 양자 사이에는 단원 명칭이 서로 유사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이에 따라 단원의 목표도 서로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다. 교과서에는 단원의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교사용 지도서를 살펴보기도 했다. 통일교 교과서는 6, 7차 종교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교육목표를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자의 판단으로는, 통일교 종교 교과서가 건전한 종교관 정립, 타종교 포용, 세계 종교와 한국 종교의 이해,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 이해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신앙심 확충이나, 종교적 인격 형성과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 중학교 교과서에는 “종교들 간의 대화”를 다루는 단원을 설정하여 “전통종교와 새로운 종교”, “대화의 자세”, “화해와 일치”의 항목을 두고, 인류는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고 서로 대화하며 이해의 폭을 넓히고 화해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했다. 《중학교 종교 2》의 “Ⅲ. 종교들 간의 대화” 참조.

통일교계 종교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통해 확인되는 단원의 목표는 단원의 교수·학습 방향을 제시해준다. 각 단원별 세부 항목의 이름은 단원의 목표나 교수·학습의 방향에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세부 항목별로 서술된 내용은 단원의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발견된다. 즉, 교과서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 목표로 나아가도록 합당하게 인도하는지의 문시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은 학생을 학습활동으로 이끌어 교육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 매개물이다. 통일교계 종교 교과서의 내용이 학생의 학습을 자극하고 안내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종교교육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교육목표와 서술 내용이 더욱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를 집필할 때에 단원별 교육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이에 맞춰 세부 항목을 구성하며, 세부 항목별 내용의 기술에서는 교육목표와의 일치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한편, 7차 종교 교육과정은 교수·학습의 방법으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험이나 문제를 활용하는 토론회 수업, 각 종교에 관련된 시청각 자료의 활용, 발문과 수시 평가 및 과제물 활용 등을 제안한다. 그런데 통일교계 종교 교과서에는 교수·학습의 방법에 대한 배려가 약하다. 서술 내용과 연관된 사진 자료가 제시되어 있고, 세부 항목마다 생각해볼 과제를 안내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부분에서 좀 더 논의할 것이다.

III. 발달이론과 통일교 종교 교과서

1. 인지발달이론과 종교적 사고발달이론의 관점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이 학생을 학습으로 이끌어 교육 목표로 나아가도록 하는 매개물이 되려면 교과서의 내용이 학생이 학습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통일교계 종교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은 고등학교 학생이 학습할만한 수준의 지식인가 그리고 고교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서술되었는가?

종교적인 지식은 대체로 추상적인 내용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피아제(Jean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 따르면 추상적인 내용을 인식하는 단계는 형식적 조작기로서 청소년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을 종교적 대상에 적용한 골드만(Ronald Goldman)은 종교적 사고의 발달은 일반적 사고의 발달보다 2-3년 늦게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내용은 일상생활의 경험을 넘어선 매우 추상적인 것으로서 상징, 은유, 추론을 통해 이해되므로, 종교적인 대상의 경우 “추상적 종교적 사고단계”는 14-15세의 청소년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다.¹⁵⁾

15) 손승희, <기독교교육의 발달이론적 기초>, 오인택 & 은준관 외 편, 《기독교교육론》, 서울: 대한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과 골드만의 종교적 사고발달이론을 종합하면, 종교적 지식의 습득은 중학생들에게는 겨우 그 가능성이 열리고 있어 어려운 과제이고 고등학생에게는 어느 정도 가능하나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중·고등학교는 입시교육에 치중하고 있어 학생들이 종교적인 내용에 관심을 지녀 볼 여유가 없으므로, 종교적 지식의 학습이 더욱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비록 추상적인 성격의 종교적 지식일지라도 교수·학습의 방법에 따라 구체성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거나 경험 가능하며 생생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교과서에 기술한다면 학생들은 추상적인 종교 지식일지라도 좀 더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달이론들을 염두에 두고 종교 교과서를 살펴보자. 통일교계 종교 교과서에 담겨있는 내용은 고등학생들이 학습할 만한 수준의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서술되었는가?

우선, 통일교 고등학교 종교 교과서의 종교 일반과 타종교에 관련된 1-I, 1-II, 1-III, 2-I, 2-II, 2-III 단원은 고등학생들의 학습이 가능한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다. 세계 종교와 민족종교에 관한 서술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생소한 각 종교 특유의 용어들은 가급적 그 뜻을 살펴 쉬운 용어로 풀어 표현하고 있다. 종교 일반과 타종교 관련 부분에 대해 종교 교과서와 7차 종교교육과정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종교 교과서가 7차 교육과정보다 기초적이고 청소년들이 파악하기에 수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통일교의 교리를 소개하는 서술 내용을 살펴보면, 1-IV과 1-V 단위에서는 하나님과 창조된 세계, 인간의 타락에 대해 비교적 어렵지 않은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2-IV, 2-V 단위에서는 역사적으로 전개된 하나님의 구원섭리와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 설명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섭리적 사건들의 소개와 그 해석을 서술하고 있다. 이 단위들에는 분량이 다른 단위에 비해 많고, 고등학생들의 지식 수준을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르면, 통일교 종교 교과서의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고교생들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것이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2-IV, 2-V 단위에서는 고등학생이 이해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통일교 종교 교과서에는 고등학생들이 종교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안내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사료된다. 추상적인 내용이 주가 되는 종교적 지식을 제공하는 종교 교과서의 편찬과정에는 교수·학습의 방법적 측면에서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우선, 7차 종교 교육과정이 제안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문제들과 연관되는 경우에 학생들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감 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현실 문제인 죽음, 고통, 정의나 불의 등과 연결되어 종교적 지식이 소개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화와 토론이나 조사와 발표 등으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을 진

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방법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로 교과서가 편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도덕 교과서는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즉, 도덕 교과서는 명언 명구, 함께 읽기(일기 자료, 생각하고 토론하기, 느껴보기, 실천해 보기, 등의 학습활동 제시), 동서양 고전탐구(학습내용과 관련된 고전 소개), 인물학습(도덕 윤리적 인물 소개) 등의 공간을 확보하여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조사하고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부여하고 있다.¹⁶⁾ 이들 외에도 컴퓨터, 시청각 자료와 대중매체 등과 같은 다양한 교구와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신앙발달이론과 종교교육발달이론의 관점

신앙발달을 연구한 파울러(James W. Fowler)는 종합적(비분석적)-인습적 신앙은 청소년기에 시작될 수 있고, 개별적-반성적 신앙은 17-18세 이상의 청년들에게서 가능하며, 접속적 신앙은 30세 이상의 성인들에게서나 비로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¹⁷⁾ 다시 말하면 중학생들은 자기가 속한 종단에 의존하되 종교적 지식을 분석하지 않고 인습적으로 수용하는 동조적 신앙에 있고, 고등학생들은 자기 신앙에 대한 깊은 반성이나 종교적 지식의 비판과 성찰을 겨우 시작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등학생들이 이분법적인 태도를 버리고 타종교에도 관심을 가지며 다양한 종교의 세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는 것이다.

모란(Gabriel Moran)은 청소년기의 종교적 발달 특징을 특정 종교를 중심한 하나의 종교를 가지는 단계로 보았고, 성인기의 종교적 발달 특징을 특정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로 보았다. 그리고 그는 청소년기를 특정 종교를 중심한 종교교육의 단계로 규정하였고, 성인기를 특정 종교를 넘어서는 종교적 종교교육의 단계로 규정하였다.¹⁸⁾ 다시 말하면, 특정한 종교 전통에 속하면서도 타종교의 가치도 인정하는 신앙생활과 그에 적합한 종교교육은 성인기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란에 따르면 특정 종교의 신앙교육은 청소년기에 가능하고, 종교일반과 종교문화의 교육은 청소년기에 어려운 과제로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성인기라는 것이다.

이처럼 파울러와 모란의 이론들은 청소년기의 종교일반과 종교문화의 교육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수준에 맞추는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말한다. 이는 피아제와 골드만의 이론들이

16)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정도서 편찬위원회, 《고등학교 도덕》, 서울: 지학사, 2004.

17) J. W. Fowler, *Stages of Faith*, 이재은 역, 《신앙의 단계들》,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188-249쪽. 그렇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에 들어서면서 신앙적 발달을 이룬다는 의미는 아니다. 파울러에 따르면 사람에 따라서는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에 들어서도 다음의 신앙발달 단계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8) G. Moran, *Religious Education Development*, 사미자 역, 《종교교육발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8, 202-213, 258-261, 268-283쪽.

지적하는 것과도 상통한다.

파울리와 모란의 이론이 시사하는 것 중의 하나는 인간은 특정 종교를 중심한 신앙 경험을 거치면서 종교성을 형성하여 간다는 점이다. 이는 종교성 형성의 계기는 특정 종교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특정 종교를 중심한 종교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¹⁹⁾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종교적 지식이 내면화되어 심성에 영향을 미치려면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감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교육 즉, 종교 일반의 교육은 학습자에게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지식이나 관념의 교육이 되기 쉬울 것이다.²⁰⁾ 이러한 면에서 청소년기의 특정한 종교를 중심한 신앙적 종교교육을 거치고 나서 성인기에 종교학적 종교교육으로 나아가는 교육방식은 타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는 발달이론이 한국사회에서 적합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달이론들은 한국의 현실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발달이론들을 한국사회에 적용한 실증적 연구결과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발달이론들은 대체적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이를 개개인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면 개인차를 무시하게 될 것이다. 발달이론을 현실에 적용할 경우에는 개개인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한편 발달이론들을 고려하면, 연구자로서는 7차 종교 교육과정은 고등학생이 학습하기에 너무 과도한 종교적 지식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1단원 “인간과 종교”에서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을 구분하고 “종교는 삶의 문제에 대한 의미의 추구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실재와 궁극적 가치의 승인”이라고 하면서 신앙을 의미 추구의 활동으로 설명한다. 4단원 “세계종교와 문화”는 유교와 도교의 경우에는 공맹의 초기유교, 성리학파 양명학, 노장사상의 등장배경과 핵심사상 및 현대적 의의 파악을, 불교의 경우에는 인도의 초기불교, 소승 불교와 대승 불교의 등장배경과 핵심사상 및 현대적 의의 파악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4 단원은 기독교의 경우 초기 기독교, 천주교, 그리스-러시아 정교, 개신교의 등장배경과 핵심사상 및 현대적 의의 파악을, 이슬람교와 기타 종교의 경우에는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의 등장배경과 핵심사상 및 현대적 의의 파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내용들은 종교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기초적으로 배워야하는 것으로서 마치 ‘종교학 개론’의 수준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대학입시를 중심한 편향되고 과도한 학업에 힘겨워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현실에서 종교학개론 수준의 교과는 청소년에게는 지나친 학습과제라고 사료된다.

차제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수준에서 학습해야 할 종교적 지식의 위계를 구분해 볼 것을 제안한다. 종교적 지식에 대한 수준별 학습내용의 구분이 이루어져야 종교 교과서의 편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종교교육학이 하나의 교과교육학으로 정립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19) 박선영, <초중등학교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3권, 18쪽.

20) 이재일, <다원종교사회에서 공립학교의 종교교육>, 충남 천안: 성화대학교출판부, 《성화논총》 2호, 1993, 163쪽.

IV. 결 론

교과서는 학교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논문은 통일교계 종교 교과서를 7차 종교 교육과정에 비취 분석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정한 국가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찬된 통일교계의 고등학교 종교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종교학적 교육과 신앙적 교육의 양면을 병행하고 있다. 종교학적 종교교육과 신앙적 종교교육의 병행에 대한 논란은 남아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았다.

통일교계 종교 교과서는 종교학적 종교교육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고 있다. 종교학이란 종교현상을 그 자체로 이해하는 학문이고, 자신의 종교적 경험조차 자신과 분리시키고 객관적 태도로 보려는 노력이다. 종교학적 종교교육은 종교일반의 성격, 종교 간의 비교 이해, 종교의 역사적, 철학적, 사회적 의미 등을 탐구함으로써 종교에 대한 건전한 지식, 태도, 사유방식을 갖추고 반성적 사고능력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통일교계 종교 교과서는 통일교의 소개뿐만 아니라 종교학적 종교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계 종교 교과서의 종교일반에 대한 서술에는 다분히 유일신 신앙적 사고와 통일교적 관점이 기반을 이루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은 교과서의 교육에 부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통일교계 종교 교과서를 분석해보면, 교육목표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 단원의 교육목표에 부합되지 못하는 서술 내용도 발견된다. 현행 교과서의 내용은 발달이론의 측면에서 고등학생이 이해하기에 대체로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교수·학습의 방법 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더구나 통일교계 종교 교과서가 7차 종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추상적이기 쉬운 종교적 지식을 구체적이고 경험 가능한 지식이 될 수 있도록 교과서의 편찬과 집필 과정에서 더욱 세심한 노력을 들여야 할 것이다.

연구자는 통일교계 종교 교과서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그들은 교과서의 한계를 여러 가지로 지적했다.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종교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종교적인 내용의 단순한 소개보다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생활의 지혜나 덕목이 강화되는 교과서를 원하였다. 그리고 예술적 감각과 상상력을 활용하거나, 명상과 요가 그리고 영화 등을 활용하여 지도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개발되기를 희망했다. 그들은 보조 자료로서 인성교육자료, 시청각 자료, 명상 등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교사들은 인쇄와 출판에 대한 기대도 표시하였다. 오늘날에는 인쇄와 출판의 기술도 크게 발전하였다. 종교 교과서도 인쇄와 출판의 기술을 활용하여 디자인, 색상, 글씨체, 도표와 사진 등을 세련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현장의 교사들은 학생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면서, 학생들에게 좀 더 다가서는 교과서를 기대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 《성경전서》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양-》,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 국제종교재단, 《세계경전》, 서울: 국제종교재단출판국, 1994.
- 김철주·고병철,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종교교육론의 쟁점과 새로운 방향〉,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17권, 2003.
- 박선영, 〈초중등학교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3권, 1997.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중학교 종교 1》, 서울: 선화학원, 1996.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중학교 종교 2》, 서울: 선화학원, 1996.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중학교 종교 3》, 서울: 선화학원, 1996.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고등학교 종교 2》, 서울: 선화학원, 1996.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고등학교 종교 2》, 서울: 선화학원, 1996.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1995.
- 손승희, 〈기독교교육의 발달이론적 기초〉, 오인택 & 은준관 외 편, 《기독교 교육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6.
- 송준석, 〈제7차 교육과정과 천도교의 종교교육〉,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13권, 2001.
- 이재일, 〈다원종교사회에서 공립학교의 종교교육〉, 충남 천안: 성화대학교출판부, 《성화논총》 2호, 1993.
- 이재일, 《통일종교교육개론》, 충남 아산: 선문대학교출판부, 2005.
- 천도교교육자회, 《천도교》, 서울: 천도교교육자회, 1995.
-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서울: 성화출판사, 1993.
- Moran, G., *Religious education development*, 사미자 역, 《종교교육발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1988.
- Powder, J. W., *Stages of faith*, 이재은 역, 《신앙의 단계들》,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원고접수: 2006년 5월 21일 1차심사: 5월 22일 게재승인일: 6월 18일

연구자 소개: 이재일

① 전공: 신학, 교육학 / 소속: 선문대학교 순결학과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③ 주요논저: 《다원종교사회에서 공립학교의 종교교육》,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교육》, 《유길준의 종교관 변화과정과 교육개혁론》

④ E-mail: leejaeil21@hanmail.net

Abstract

A Study on Textbooks for Religious Education in Unification Church

Lee, Jae-Il

Sunm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textbooks which are used for religious education in Unification Church secondary schools. Actually the author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textbooks. First, I explored aims and contents, teaching-learning methods of the textbooks in comparison with the 7th National Religious Curriculum. Second, I investigated the suitability of the textbooks to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the light of developmental theories. Finally, I searched the possibility of more active textbooks.

Unification Church secondary schools combine 'education about religion' (religious education in the science of religion) and 'education of religion' (dogmatic religious education). However, it can be said that the contents about world religions and Korean religions in the textbooks are described on the view points of monotheism and Unification Church.

According to my analyzing the textbooks, the aims of religious education are not clear in some units and the contents of some units are not suitable to the educational aims. The level of the textbooks are suitable to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the light of developmental theories. However, the textbooks need various teaching-learning methods. The 7th National Religious Curriculum stressed 'education about religion' more than 'education of religion'. If Unification Church secondary schools wants to fit with the scope and the level of the 7th National Religious Curriculum, they shall make an effort particularly to develop more active textbooks.

Key words : The 7th National Religious Curriculum, 'education about religion' (religious education in the science of religion), 'education of religion' (dogmatic religious education).